

타이베이 근교 택시투어

예류지질공원 - 기륭 수남동 13층 금광 유적지
- 황금폭포 -진과스 황금박물관 - 지우편
라오지에 - 스펀 핑시 라오지에 - 용산사 - 숙소

여행국가 중화민국(타이완)

여행도시 타이베이

여행기간

2019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오늘 일정이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날씨는 비가 내리지 말길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랬건만,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린다. 어쨌건 출발이다.



지난번 예약한 택시는 약속시간 전에 미리와서 대기중 이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어 어제저녁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메세지 한 번 날려서 오늘 약속 잊지 말라고 사전 점검 했었다는 것.





첫 일정 대만 여행의 최고봉 예류 지질공원으로 갑니다. 예류 까지는 약 한 시간 소요



지열곡 입구 온천수에 익힌 계란등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럼 이젠 사진으로 지열곡
풍경을 전합니다.

지열곡(地熱谷)





지열곡 구경을 마치고 타시 택시를 타고 베이터우 역으로 가서 스린역까지 MRT를 타고 갑니다. 다음 목적지가 고궁박물관



역시 여기서도 고궁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물론 노선 버스도 있겠지만 귀차니즘으로 쉽게잡니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4명이 이동하는





거라서 MRT를 주 이동수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부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나름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스
린
역
에
서



국립고궁박물관까지는 직선거리 2.5 km 이곳 박물관이 유명한게 장계석 총통이

국궁 내전 와중에도 문화제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국보급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한 탓이라나요? 뭐 그렇다는 군요.

그럼 여기도 구경을 한 번 해봅니다.

국립고궁박물관(台北 國立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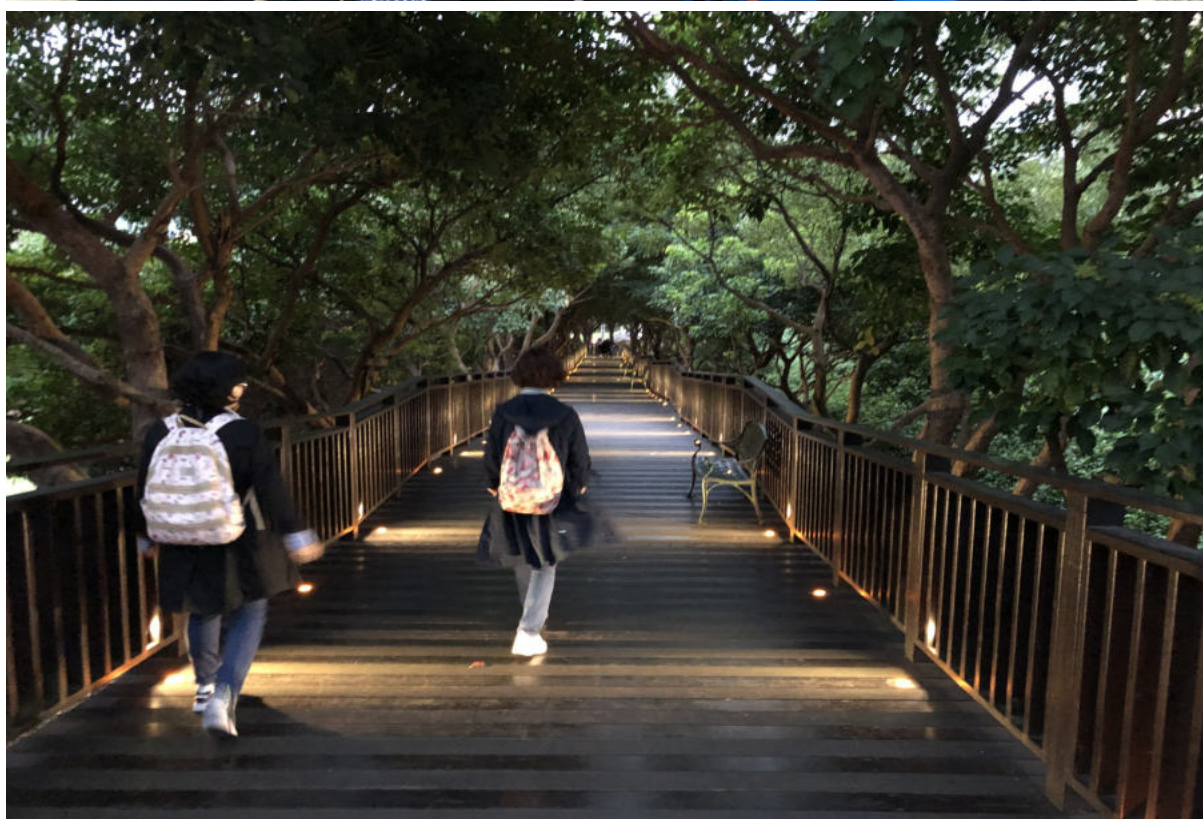












소백궁

소백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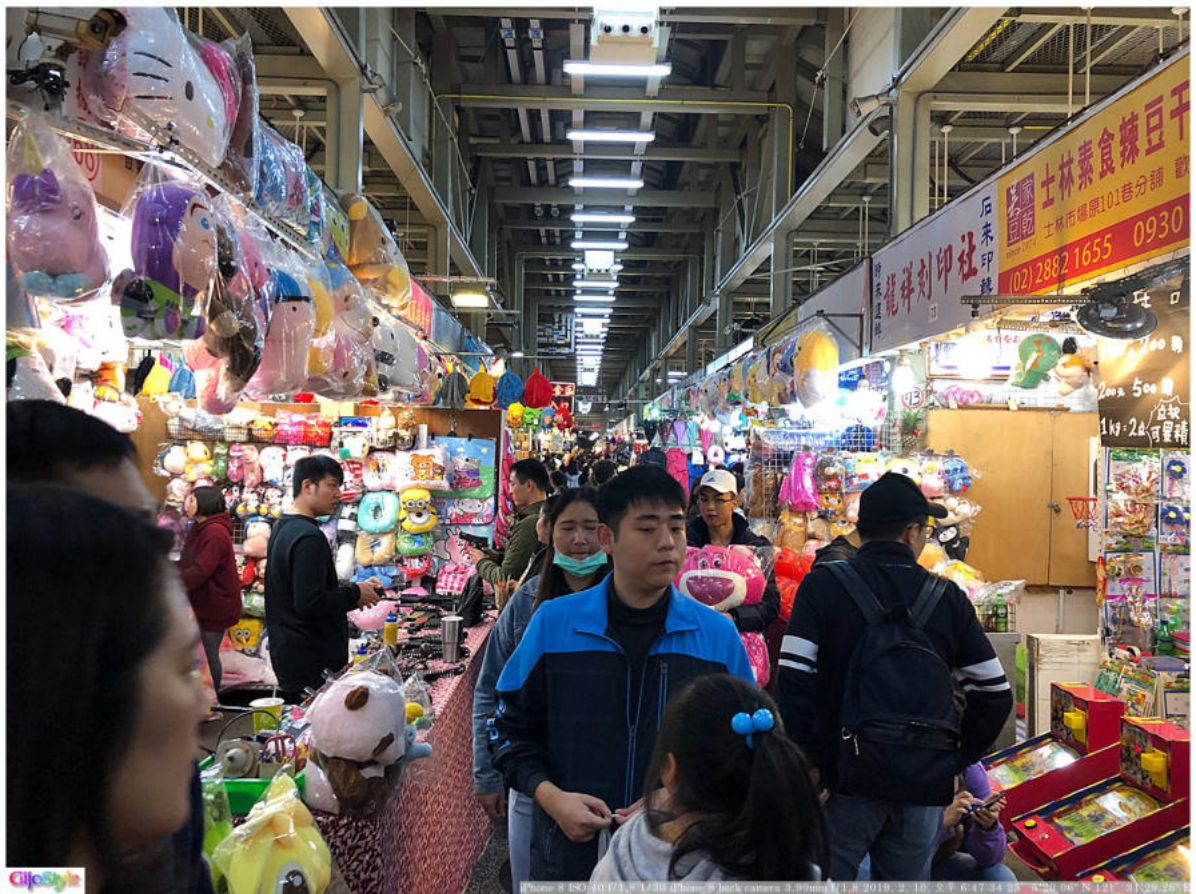


고궁박물관 관람 후 스린 야시장으로 이동

스린 야 시장은 타이베이시의 가장 큰 야시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쪽은 전통 양명 영화관 주변으로 대남로 자성궁 일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스린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간식거리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다. 지하철 젠탄(검담)역 출구에서 정면으로 나오면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들이 눈을 사로 잡는다.











스린 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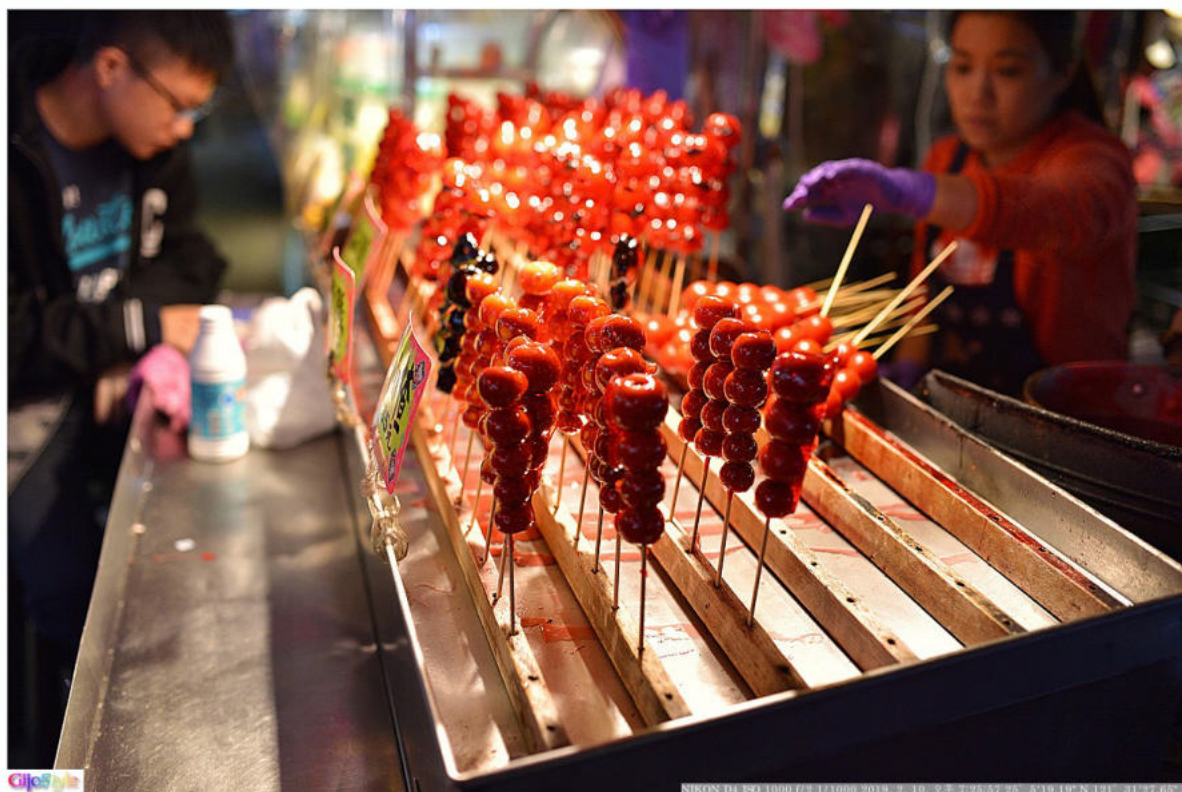


아! 여기도 중국에 뒤지질 않네요! 수 많은 인파 속으로~~





iPhone 8 ISO 50 f/1.8 1/120 iPhone 8 back camera 3.99mm f/1.8 2019. 2. 10. 5. 6:09:48.35 5°18.3'N 121°31'33.05"E



NIKON D4 ISO 1000 f/2.8 1/1000 2019. 2. 10. 22 7:25:57.25 5°19'19"N 121°31'27.65"E

낚시로 잡은 생선을 요리해주는 재미있는 가게



오늘 일정 여기서 마무리

집 아니 숙소로 승~~

